

환경부 장관, 지류지천 정비에 민간 전문성 적극 활용할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일 서울에서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엔지니어링 업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풀을 권역별로 구성해 지류·지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의 퇴적토 준설, 제방축조 등 하천정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방안 등도 토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환경부 장관 모두발언 1부. 끝.

담당 부서	물관리정책실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현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정창명	(044-201-7703)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7월 장마기간(7月13 ~ 25日) 동안에도
충청권에 600~700mm의 역대급 강수량이 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강의 수위는 관측 이래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내성천과 형산강을 가보니,
준설 등 하천정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고
그동안 너무 방치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하천관리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와 같은 홍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본류는 정비가 잘되었으나,
홍수에 보다 취약한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설 등의 하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방 안정성 강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각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환경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천 홍수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